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글로벌 중장년 인재 양성 사업

김형주 KOICA 글로벌인재양성실 과장

I. 머리말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 약 120억 달러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받았고, 특히 1946~1980년까지 미국의 가장 많은 원조를 받던 수원국 중 하나였다. 2009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ECD DAC)에 가입하면서 대한민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로 바뀌었다.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은 정부 차원의 대외 무상 협력 사업을 전담·수행하는 외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 간의 우호 협력관계 및 상호 교류를 증진하고 이들 국가들의 경제·사회 발전 지원을 통해 국제협력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 자료¹⁾에 따르면,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55~64세)와 고령층(65세 이상) 중에서 장래에 일하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61%로 조사되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급속히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실버세대의 일자리 창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다양한 행정경험과 경영능력을 보유한 40~60대의 퇴직전문인력들을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활용하는 동시에 실버세대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는 KOICA의 글로벌 중장년 인재 양성 사업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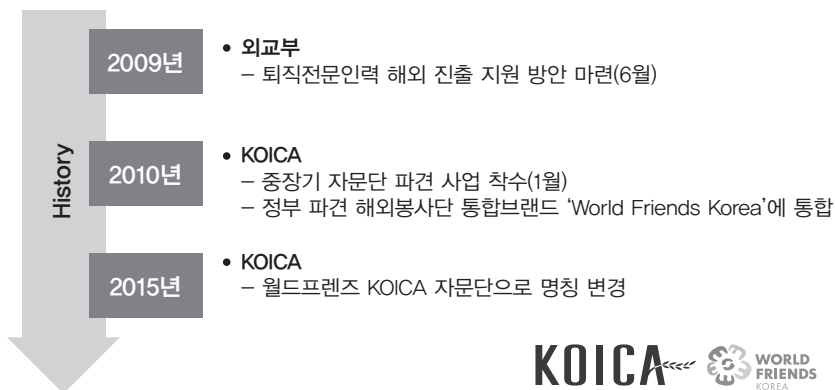
1) 통계청(2015). 경제활동인구 고령자 부가조사 결과.

II. 글로벌 중장년 인재 양성 사업의 추진 현황

1. 추진 배경

우리 정부는 청년실업 대책과 달리 중장년 퇴직자들을 위한 고용대책이 매우 부족하고 무엇보다 공공·민간 부문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퇴직자들의 지식과 네트워크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인식하여, 지난 2009년 6월 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 TF 제20차 회의에서 퇴직전문인력의 해외 진출 지원 방안을 의결하였다. 외교부가 주관하고 KOICA가 수행하고 있는 동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 자문을 지원하던 기존의 KOICA 전문가 파견 사업에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을 접목시켜 2010년부터 글로벌 중장년 인재 양성 사업(중장기 자문단, World Friends Advisors)으로 확대·시행하게 되었다.

그림 1. 주요 사업 연혁



2. 사업 내용 및 절차

글로벌 중장년 인재 양성 사업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먼저, 현지 수요 조사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정에 필요한 실질적 정책 노하우와 지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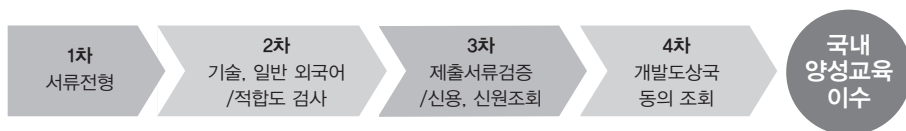
전수할 파견 수요를 선별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해당 분야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공개 모집·선발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중장년 맞춤형의 국제개발협력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기타 출국 전까지의 제반 행정업무(관용여권 발급 등)를 지원하는 것이다.

수요 조사와 심사 그리고 모집과 선발은 KOICA 글로벌인재양성실에서 수행하고, 국제개발협력 교육은 월드프렌즈교육원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각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파견 수요는 정부부처, 공공기관, 학교, 직업훈련원 등 개발도상국 정부와 관계되어야 하며,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접수하고 있다. 외교부-재외공관, KOICA 해외사무소를 통해 연 2회 조사를 실시하고, 파급효과 등의 적절성을 분석·심사하여 최종 결정하고 있다.

둘째, KOICA 자문단은 우리 정부가 파견하는 해외봉사단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외봉사 의욕을 가진 자를 공개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퇴직(예정)자로서 해당 직종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영어(또는 개발도상국 공용어)로 강의·자문·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자, 개발도상국에서 요구하는 기타 자격을 갖춘 자, 그리고 6개월 이상 해외 생활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이어야 한다. 선발 전형은 총 4단계로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선발 전형 단계



셋째, 월드프렌즈교육원에서 운영되는 중장년 맞춤형의 국제개발협력 교육 프로그램은 KOICA 자문단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인성, 글로벌, 리더십, 인문학,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피교육생들에게 총 5개 과정 25개 과목을 2주간에 걸쳐 교육하고, 규정 및 근태 평가를 통해 수요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보다 효과적인 자문활동을 위해 국제개발협력 정책형성, 전략적 관점의 상황 분석, 활동 목표 관리 등의 워크숍과 세미나 형태의 실무 강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개발협력 이슈인 인권 및 거버넌스 과정 그리고 영어문서 작성법, 소통의 리더십 등 실무 및 인성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파견 국가 미리 보기’ 과목에서는 최근 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자문단원과 현재 파견 국가의 프로젝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KOICA 직원들을 강사로 섭외하여 실질적인 파견 국가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교육기간 중에는 ‘청렴실천 결의대회’ 및 ‘재난안전의 날’ 을 시행함으로써 청렴의식과 공직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안전의식 및 위기 상황 대처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1. 국제개발협력 교육 프로그램

과정(5대 분야)	세부 과목	
인성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바른 성의 이해 ▲ 청렴실천 결의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렴교육 ▲ 소속감 및 공동체 의식 함양
글로벌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 개발협력 이슈2(인권) ▲ 영문서 작성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ODA 개발협력 정책 ▲ 개발협력 이슈1(거버넌스) ▲ 현지어 교육(초급, 중급)
리더십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협력 정책형성 및 프로젝트 전략 ▲ 소통의 리더십 ▲ 보고서 등록 방법 ▲ 자문단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단원 목표 관리 ▲ 인적 네트워크 구축 형성
인문학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문화의 이해와 수용 ▲ 파견 국가 미리 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속의 한국문화
안전과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안전 수칙 및 범죄 피해 예방요령 ▲ 응급처치와 생활안전 ▲ SOS 및 보험안내 ▲ 여행의학 및 해외 건강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안전교육 ▲ 예방접종 1, 2

3. 주요 활동 내역

KOICA 자문단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40개국에 누적인원 389명이 파견되었다. 파견 국가는 우리나라의 ODA 전략, 파견 국가의 안전도, 해외봉사단 관리 활동 여건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표 2. 파견 국가(2017년 기준, 총 40개국)

구분	계	파견 국가
아시아	14개국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네팔, 동티모르, 몽골, 방글라데시, 솔로몬제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피지
아프리카	13개국	르완다, 세네갈, 가나, 모잠비크, 튀니지, 카메룬,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우간다, 모로코, 코트디부아르, DR콩고, 케냐
중남미	10개국	파라과이, 과테말라, 니카라과, 볼리비아, 에콰도르, 콜롬비아, 페루,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 온두라스
중동·중앙아	3개국	요르단,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2017년 7월 현재 128명의 KOICA 자문단이 공공행정, 교육, 농림수산, 산업에너지,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자문 및 지식 전수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데 자문단의 대표적인 활동 내역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네팔 카트만두 대학에서는 한국 헌법과 민주주의, 한국·네팔·미국의 헌법 비교에 관해 강의를 하고 있다. 자문단은 대학에서 헌법을 가르치며 한국의 분단 상황과 해방 후의 역사, 한국 민주주의가 걸어온 길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성장 배경에 대해서도 강의한다.

또, 볼리비아 수출진흥청에서 수출과 해외 마케팅 분야를 자문하고 있기도 하다. 볼리비아의 퀴노아는 고대 잉카문명 시절부터 재배된 고단백·고영양 식품으로 해발 3500m 이상의 고산지대에서 생산되는 작물이다. 자문단은 관련분야에서의 대기업 근무와 중소기업 대표의 경험을 살려 퀴노아가 볼리비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상품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수출 자문활동 및 현지 직원들의 역량 강화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자문단의 파견 활동은 국내에 전파됨으로써 관련 사업의 인지도 확산을 위한 국내외 사업 홍보전략 수립 및 전략적 타겟 홍보 추진과 국내 유관기관 및 해외 주요 기관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게 된다.

Ⅲ. 맺음말

한국고용정보원의 연구결과²⁾에 의하면,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이행하는데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의 선진국은 50년 이상의 이행 기간을 갖는 반면, 우리나라의 이행 기간은 불과 19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된 이유는 출산율 감소와 함께 기대수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요즘 은퇴 후에도 일자리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금전적 문제뿐만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 얻게 되는 행복과 보람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퇴직한 실버세대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참여 기회의 확대는 국정의 핵심과제다. KOICA의 글로벌 중장년 인재 양성 사업은 우리 중장년층이 그들의 숙련된 경험과 지식을 발휘하여 제2의 인생을 펼쳐나가는데 있어서 유용한 기회의 장이 될 것이며,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개발과 빈곤 퇴치에 이바지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사업이다. 이에 KOICA는 앞으로도 우리 중장년층의 해외 진출 및 국제개발협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2) 안준기·최기성(2016). 중장년층의 경력 특성과 지원정책 방안.

참고문헌

안준기·최기성(2016). 중장년층의 경력 특성과 지원정책 방안. 한국고용정보원.
통계청(2015). 경제활동인구 고령자 부가조사 결과.